

# 252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6. 18



---

##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민선 7기 서울시장에 바라는 정책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정희윤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https://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https://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민선 7기 서울시장에 바라는 정책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시민 관심 경제 이슈: 민선 7기 서울시장에 바라는 정책	19
	부록: 2018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23

김 범 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i.re.kr

##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의 동반 상승세 시현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8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 분기 증가세(3.1%)를 상회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8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3.8% 상승했다. 그러나 4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0.7% 감소한 509만 8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0.1% 감소한 85만 1천 명을 기록했다.

##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다소 호전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 2/4분기 97.8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견줘 0.5p 상승한 86.6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와 동일한 96.0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도 각각 전 분기 대비 0.2p, 1.0p 상승한 67.3, 87.0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보다 0.8p 상승한 114.1을 기록했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 대비 1.3p 상승한 101.2를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도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물가예상지수」도 상승하면서 시민들의 물가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경제

민선 7기 서울시장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 1순위는 경제 분야가 52.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환경 분야', '주택 분야'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둘 부문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었고, 그다음은 '물가 안정',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안정',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둘 부문은 1순위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직업화',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육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이동·확산 경로 분석 등 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를 꼽았다.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의 동반 상승세 시현

2018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

- 2018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6.5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 1/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은 2011년 4/4분기(4.3%) 이후 최고치
  - 금융 및 보험업(10.2%), 부동산업(7.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2%) 등이 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5.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0.4%) 등은 감소
  - 1/4분기 전국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3.4로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
- 2018년 4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0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최근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탈피
  - 이에 비해 4월 중 전국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7%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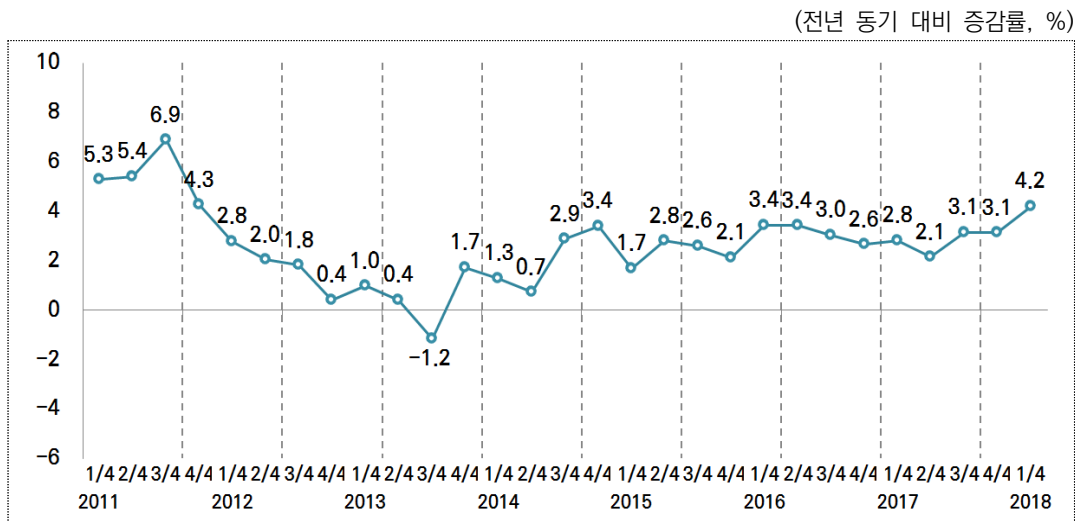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sup>1)</sup>

1)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sup>2)</sup>는 작년 같은 달보다 소폭 증가

- 2018년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2월부터 다시 오르며 3개월 연속 오름세 지속(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9%)
  - 그러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세는 2018년 2월 14.7%에서 3월 6.8%, 4월 0.5%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
- 부문별로 보면, 4월 중 백화점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판매액은 3.3% 감소
  - 백화점 판매액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2.8%), 대형마트 판매액은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감소(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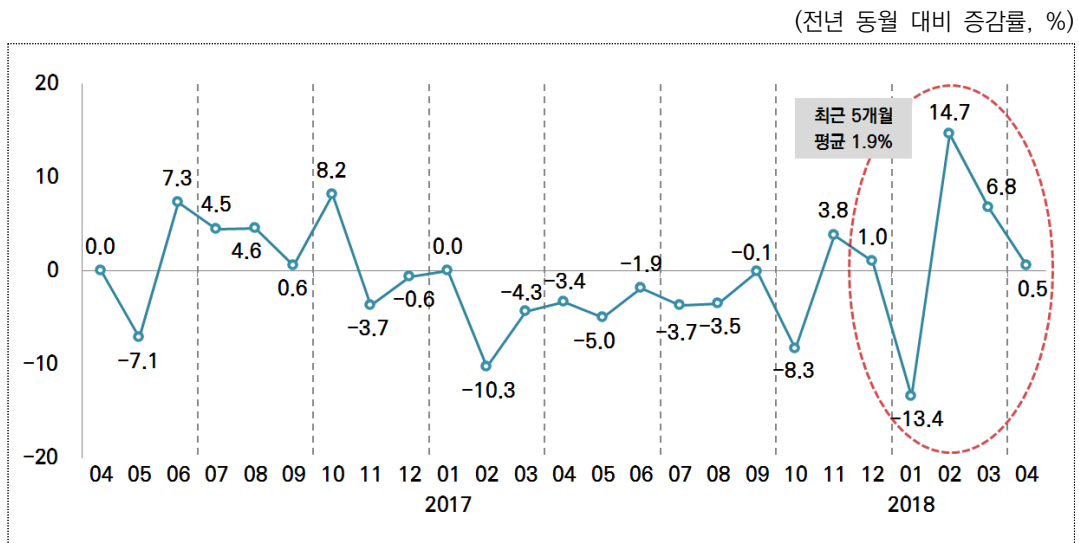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sup>1)</sup>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sup>3)</sup>와 「청년층 취업자 수」는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소폭 감소

- 2018년 4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0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513만 2천 명)보다 0.7% 감소
- 전체 「취업자 수」는 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0.6%)
- 2018년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5만 2천 명)보다 0.1% 감소한 85만 1천 명 수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8년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4월 들어 처음으로 소폭 감소(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1%)
- 청년층을 비롯한 전체 취업자 수가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등 고용 회복의 신호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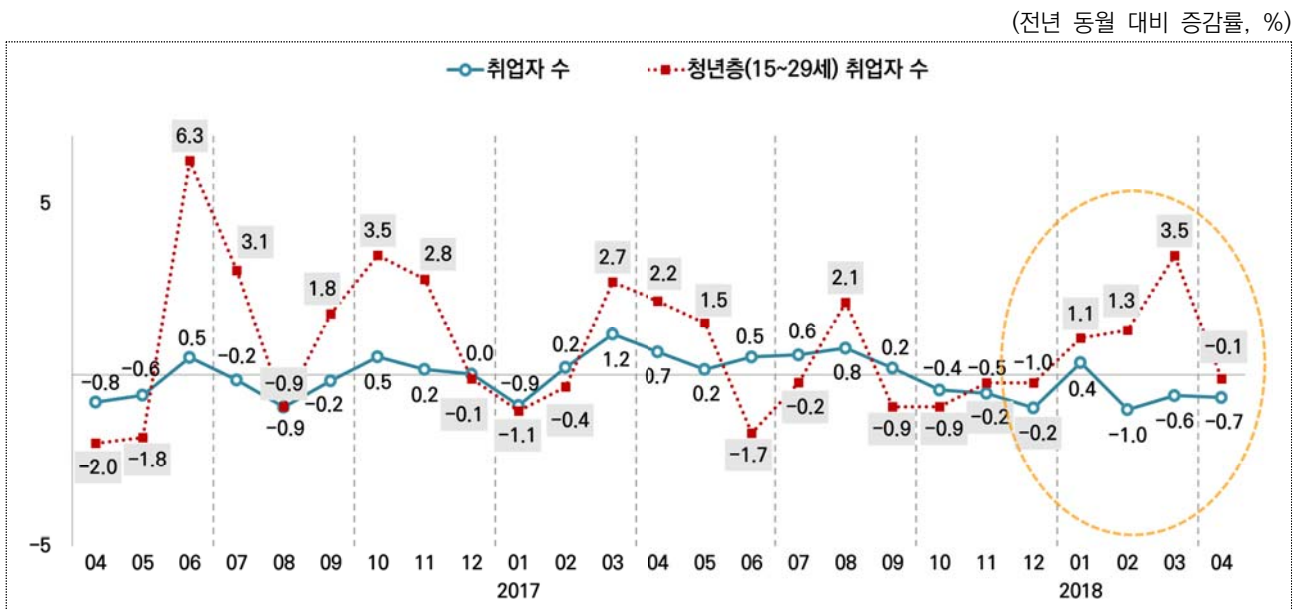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고용통계는 작성 시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시계열 자료도 등록센서스 인구를 적용하여 보정·공표되었다(2018년 2월 14일). 이에 따라 고용통계의 이전 수치는 모두 변경되었다.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개선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상승

- 2018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sup>4)</sup> 기준 97.8로 전 분기 대비 0.5p 소폭 상승
- 그러나 2017년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하였던 「소비자태도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
- 2/4분기 이후 「소비자태도지수」의 향방은 주로 고용지표 등의 영향이 클 듯
- 고용지표는 아직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고용지표와 더불어 지방선거와 북미회담 등 외부 요인도 시민의 경제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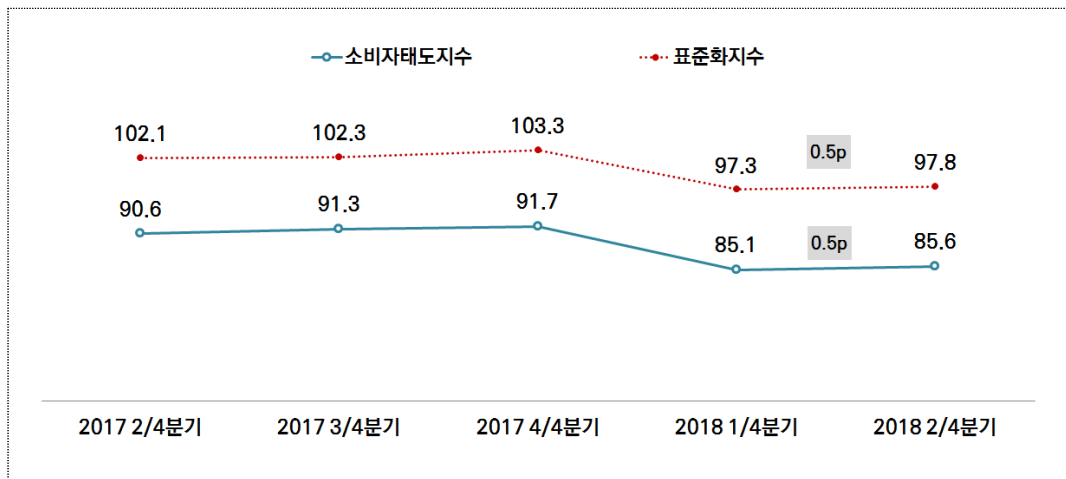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시계열의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현재생활형편은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고, 미래생활형편은 전 분기 대비 보합 수준

- 2018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한 86.6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와 동일한 96.0을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본 「현재생활형편지수」의 수준은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고 있지만, 연 가구소득 7,200만 원 이상에서만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본 「미래생활형편지수」의 수준도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가운데 연 가구소득 4,800만 원 이상부터 지수 수준이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
- 1년 후 가구의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감소’
- ‘가계소득 감소’가 38.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물가 상승’(22.1%), ‘경기 불황’(18.5%), ‘지출비용 증가 예정’(11.6%) 등의 순으로 응답
- 소득계층이나 가구주 연령층에 관계없이 모두 ‘가계소득 감소’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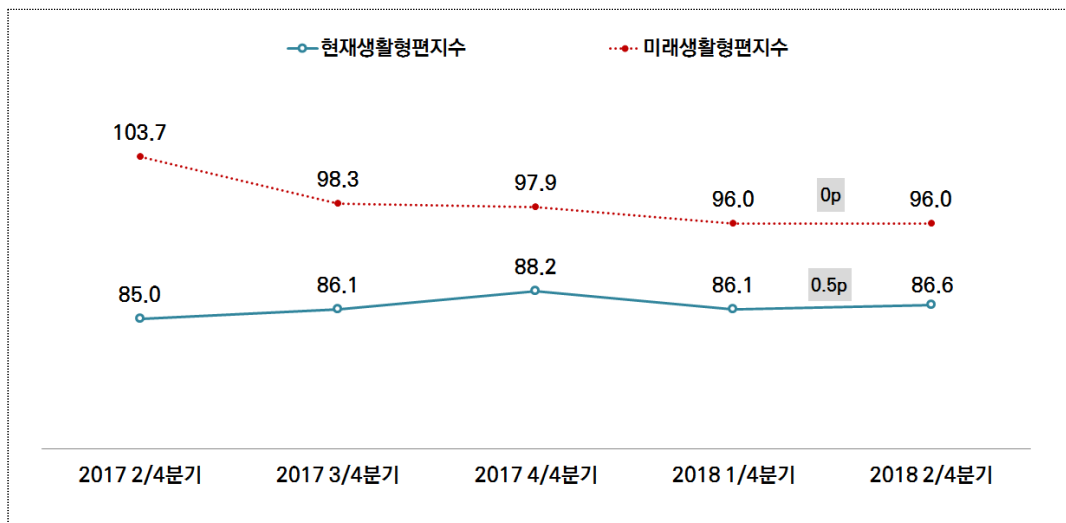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남권과 동북권에서 전 분기보다 상승하고 나머지 권역은 하락

- 2018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남권이 88.3으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동남권(86.8), 동북권(85.9), 서북권(84.9) 등의 순이며, 도심권이 84.5로 가장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 「현재생활형편지수」의 수준은 모든 권역에서 80대에 불과해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 2018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전 분기 대비 5.4p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그다음에 서남권이 전 분기 대비 0.6p 상승하였고, 다른 권역은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 서북권은 전 분기 대비 5.6p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컸고, 그다음은 동남권(-3.0p), 도심권(-0.1p) 등의 순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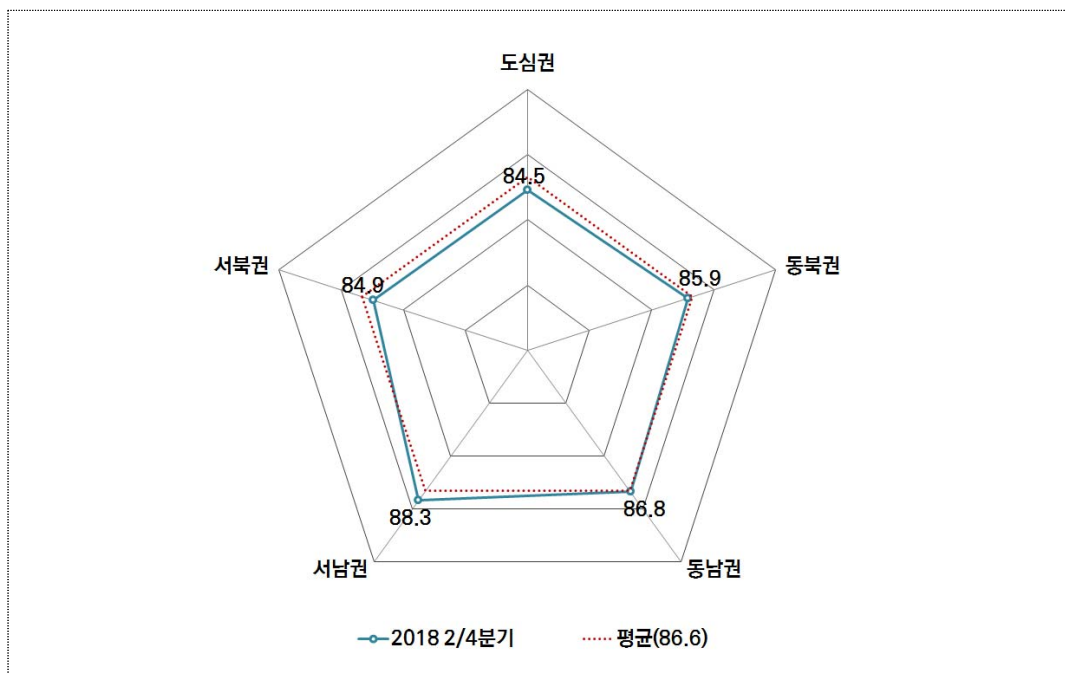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

- 2018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7.3으로 전 분기 대비 0.2p 상승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7년 4/4분기부터 2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2/4분기 들어 0.2p 소폭 상승하며 반등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그간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 전환,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 지속 등으로 상승했지만, 고용지표 개선의 체감도가 아직 미약해 상승폭이 소폭에 그친 것으로 판단
  -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재경기판단지수」의 수준이 낮아 저소득층일수록 현재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
- 2018년 2/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7.0으로 전 분기보다 1.0p 상승
  - 3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4분기 들어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수 수준은 87.0으로 기준치(100)를 하회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는 30대 이하 93.7, 40대 89.8, 50대 83.2, 60대 81.0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래경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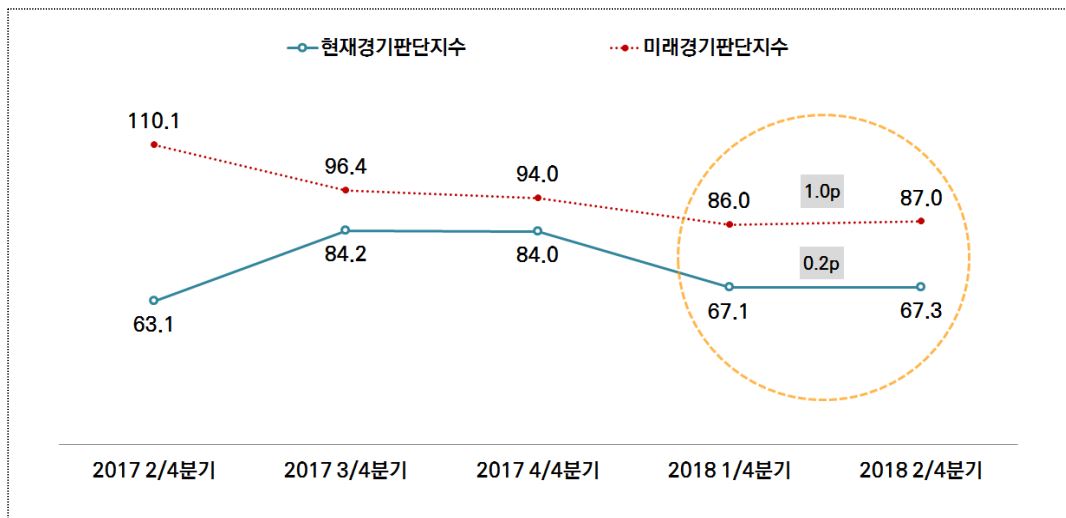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등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조사
- ‘물가 상승’이 38.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16.2%), ‘부동산 경기 부진’(12.0%), ‘막연한 불안감’(9.6%), ‘세계경기 하락’(6.7%) 등의 순
- 가구주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선택해 시민들의 향후 물가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
- 특히 30대 이하의 ‘물가 상승’의 응답비율이 60.4%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최근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보합 수준
- 전월 대비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7년 11월 -0.6% → 12월 0.3% → 2018년 1월 0.4% → 2월 0.7% → 3월 0.1% → 4월 0.2% → 5월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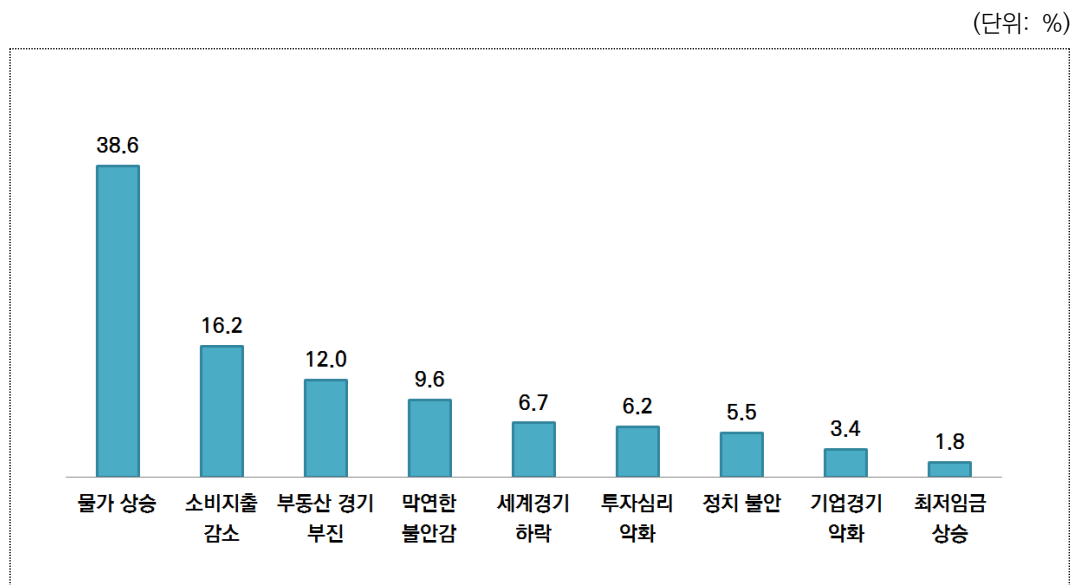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상승

- 2018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4.1로 전 분기 대비 0.8p 상승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14년 1/4분기부터 꾸준히 기준치(100) 이상을 유지
  - 가구주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40대만 전 분기 대비 하락하고 다른 연령층에서 소폭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 보면, 2,400만 원 미만, 3,600~4,800만 원 미만, 7,2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나머지 소득계층은 하락
- 2018년 2/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101.2로 전 분기보다 1.3p 상승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1/4분기에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2/4분기에 101.2로 기준치를 소폭 상회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와 50대는 전 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40대와 60대는 전 분기 대비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보면, 6,0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은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6,0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은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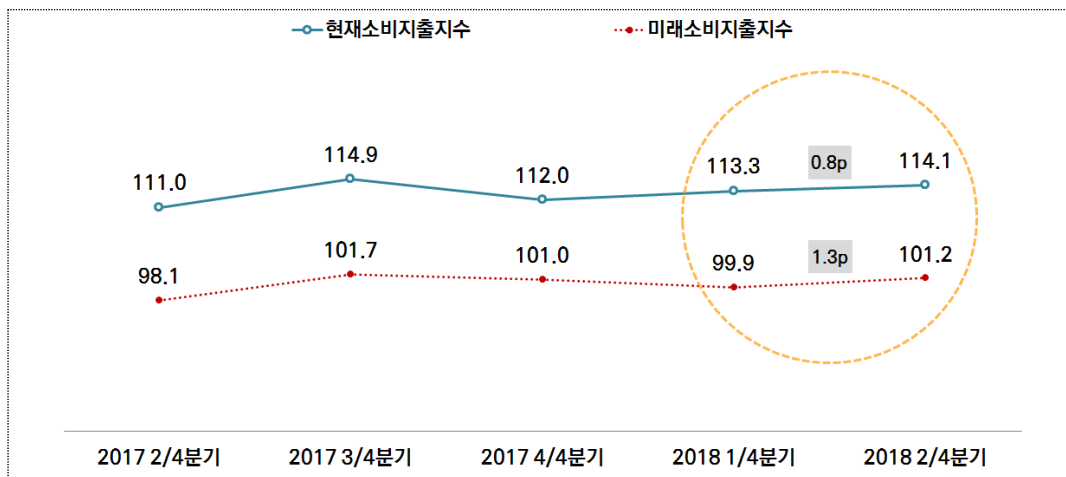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만 전 분기 대비 보합이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소폭 상승

- 2018년 2/4분기 ‘교육비’,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주거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
  - 2/4분기 ‘교육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p 상승한 111.9로 기준치(100)를 상회할 뿐 아니라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식료품비’ 지수도 전 분기보다 2.3p 상승한 103.7로 2017년 3/4분기부터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
  - ‘교통·통신비’ 지수도 전 분기에 견줘 1.6p 상승한 102.4를 기록
  - ‘주거비’ 지수는 104.1로 전 분기에 비해 보합 수준이지만 꾸준히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
- 2018년 2/4분기 ‘문화·오락비’, ‘의류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 2/4분기 ‘문화·오락비’ 지수는 지난 2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전 분기 대비 2.4p 상승한 95.9를 기록했지만,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의류비’ 지수도 89.3으로 전 분기보다 1.0p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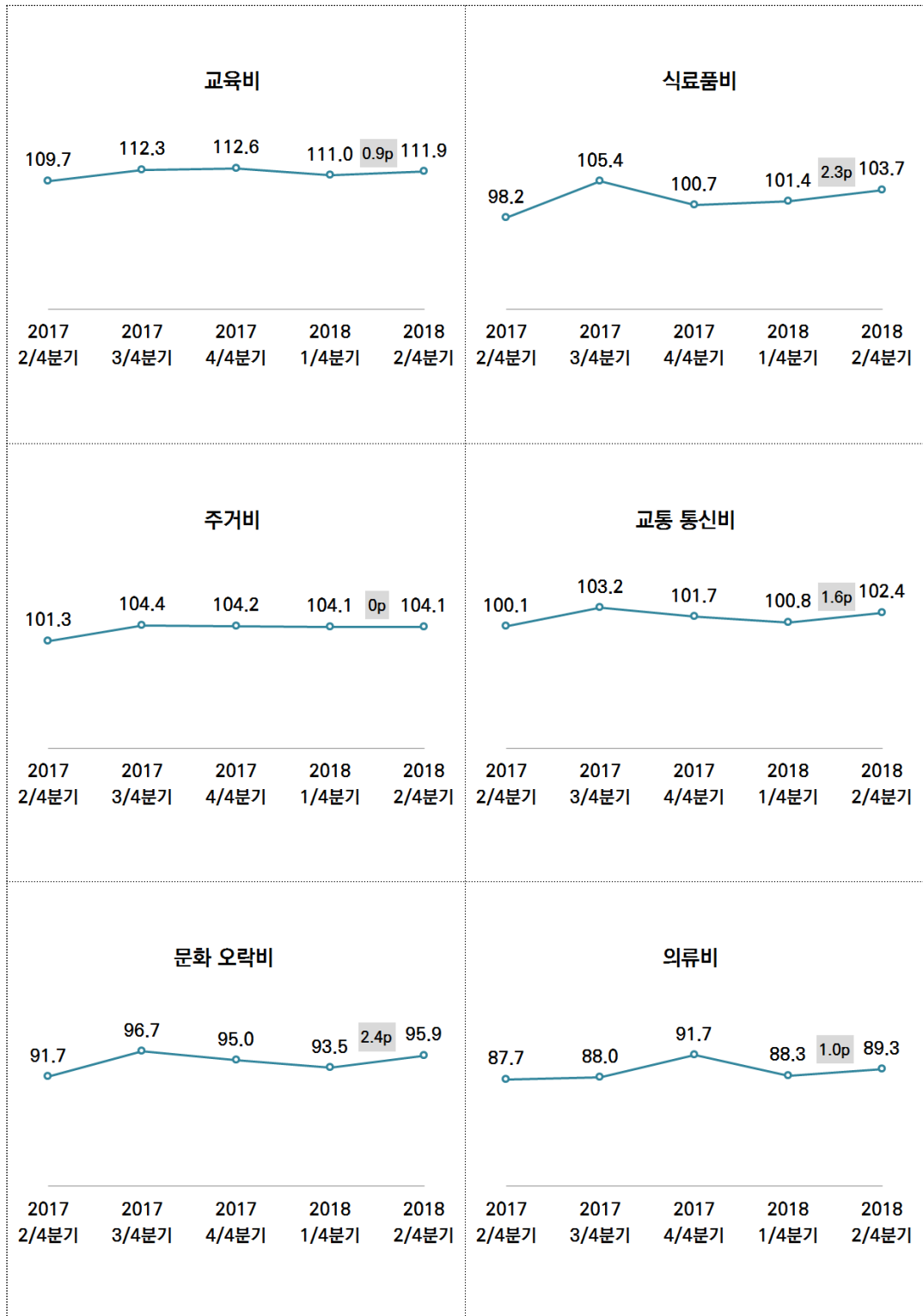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의사는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 이하

- 2018년 2/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4p 상승한 91.0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30대 이하와 50대가 각각 전 분기 대비 3.2p, 1.8p 상승한 반면, 40대와 60대는 각각 전 분기보다 0.6p, 3.9p 하락
- 2018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0.1로 전 분기 대비 2.7p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
  - 가구주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0대에서만 전 분기 대비 2.9p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
  -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부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부담 등으로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
  - 2018년 5월 서울의 전세 및 월세 가격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24%, -0.10%로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1%로 오름세 지속
  -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6년 2.91%에서 2017년 3.27%, 2018년 1~4월 3.46%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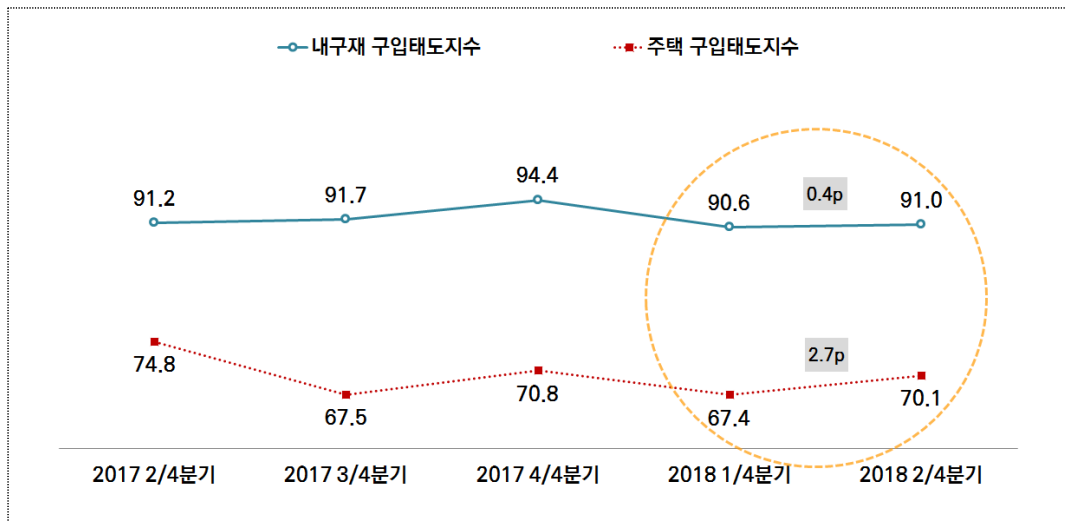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 서울시민의 권역별 주택 구입의사는 서남권만 하락하고 모두 상승

- 2018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서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상승
  - 동북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5.4p 상승한 74.0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도심권과 서북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각각 전 분기보다 4.0p, 6.2p 상승한 72.8, 70.2를 기록
  - 동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3.2p 상승했지만, 지수 수준은 66.3으로 주택구입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서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하락한 68.4로 조사
-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의사는 대다수 권역에서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여전히 주택 구입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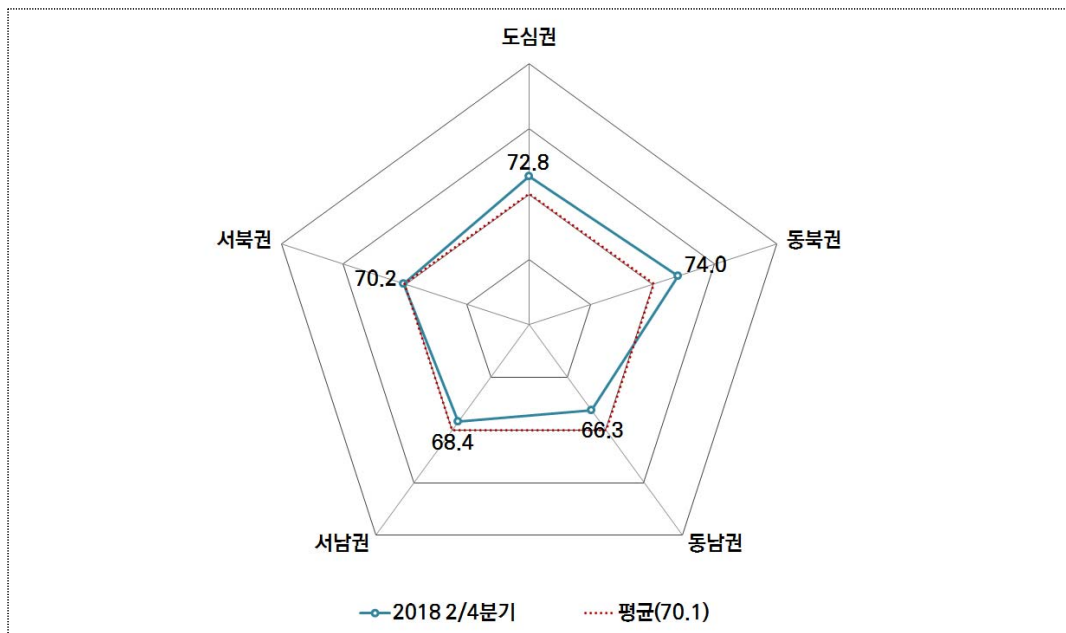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예상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

- 2018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99.0으로 전 분기 대비 1.3p 상승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이 늘었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소득이 늘었다’(27.4%), ‘금융자산이 늘었다’(27.3%), ‘부채가 줄었다’(13.3%) 등의 순으로 조사
- 2018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9.4로 전 분기보다 1.0p 상승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7년 3/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2018년 2/4분기에 처음으로 반등
  -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상황전망지수」가 낮아지는 가운데, 50대를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 전 분기보다 상승
- 2018년 2/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45.6으로 전 분기 대비 1.1p 상승
  - 「물가예상지수」는 2018년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40대를 기록
  - 특히 「물가예상지수」는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할 정도로 서울시민의 물가불안심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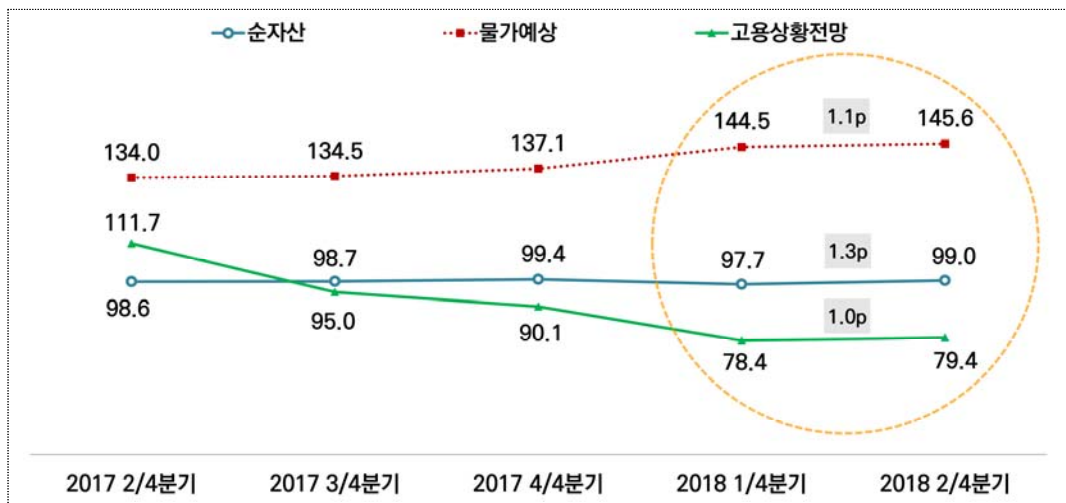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 서울지역의 가계 부채 보유 가구는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

- 2018년 2/4분기에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64.3%로 전 분기 대비 1.4%p 감소
- 가구주 연령별로는 50대가 69.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 이하(65.2%), 40대(63.8%), 60대(55.8%)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21.9%로 전 분기 대비 0.9%p 증가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6.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1.4%), '상환 안함'(2.5%)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여전히 '주택관련 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관련 자금'(54.5%)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9.5%), '사업 자금'(16.3%), '재테크'(4.3%), '자녀 교육비 및 학자금'(2.9%)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기준으로 보면, '주택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1.3%와 39.0%로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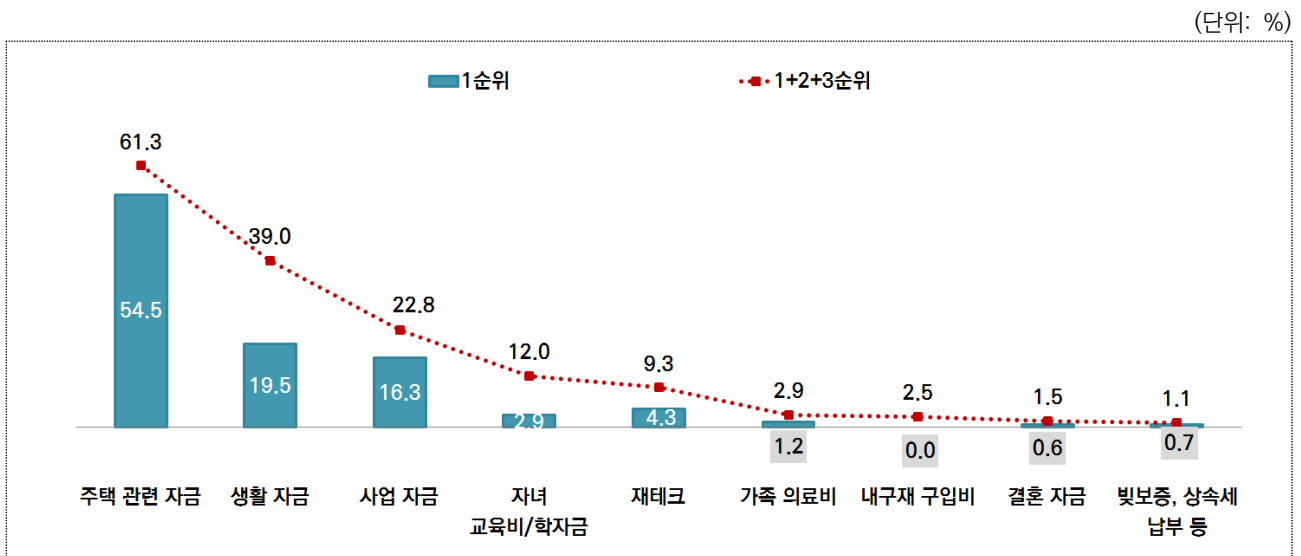


그림 14.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민선 7기 서울시장에 바라는 정책

## 민선 7기 서울시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 분야는 경제

민선 7기 서울시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 1순위는 '경제 분야'

- 서울시민은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경제 분야'를 제시
- '경제 분야'가 52.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환경 분야'(22.9%), '주택 분야'(10.7%), '여성·가족 분야'(3.8%), '도시재생 분야'(3.0%), '시민복지 분야'(2.7%) 등의 순으로 응답
- 1~3순위 합계결과도 '경제 분야'가 72.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환경 분야'(58.5%), '주택 분야'(41.0%), '여성·가족 분야'(23.9%), '시민복지 분야'(21.7%), '도시재생 분야'(17.1%), '도시안전 분야'(14.6%), '문화관광 분야'(13.2%), '교육 분야'(5.7%) 등의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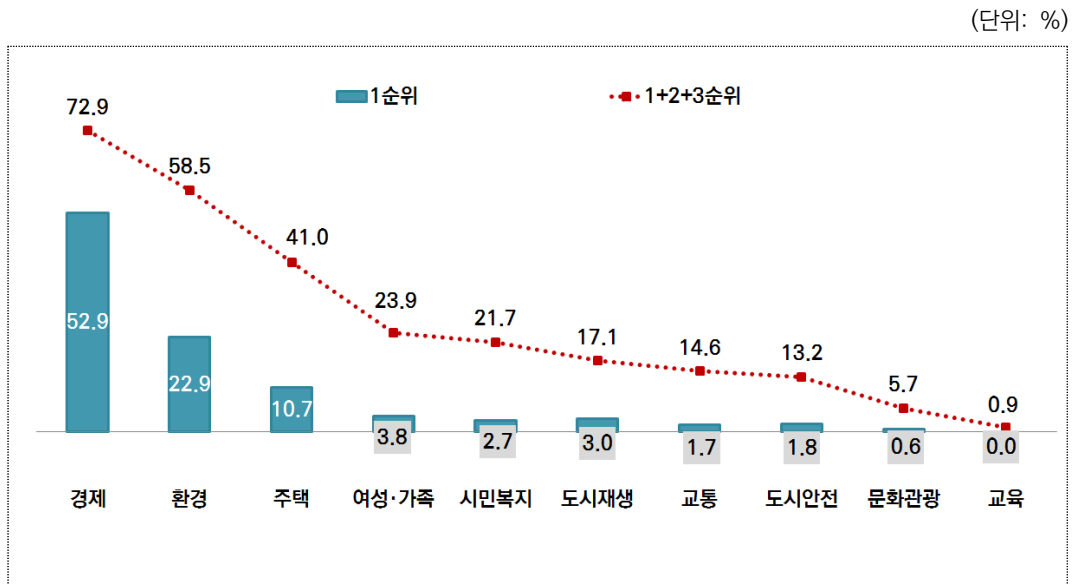


그림 15. 민선 7기 서울시장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1순위는 ‘일자리 창출’

-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1순위는 ‘일자리 창출’로 전체 응답자의 38.4%가 응답
- 그다음은 ‘물가 안정’(22.8%),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안정’(13.7%),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9.8%) 등의 순
- 연령별로 보더라도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응답률이 31.4~4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안정’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 (30대 이하 23.8% > 40대 13.2% > 50대 9.9% > 60대 8.5%)
- 1~3순위 합계결과도 ‘일자리 창출’이 56.8%로 가장 많지만 ‘물가안정’도 56.3%로 유사한 수준
- 그다음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안정’(43.9%),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29.1%), ‘고용 안전망 강화’(26.1%) 등의 순으로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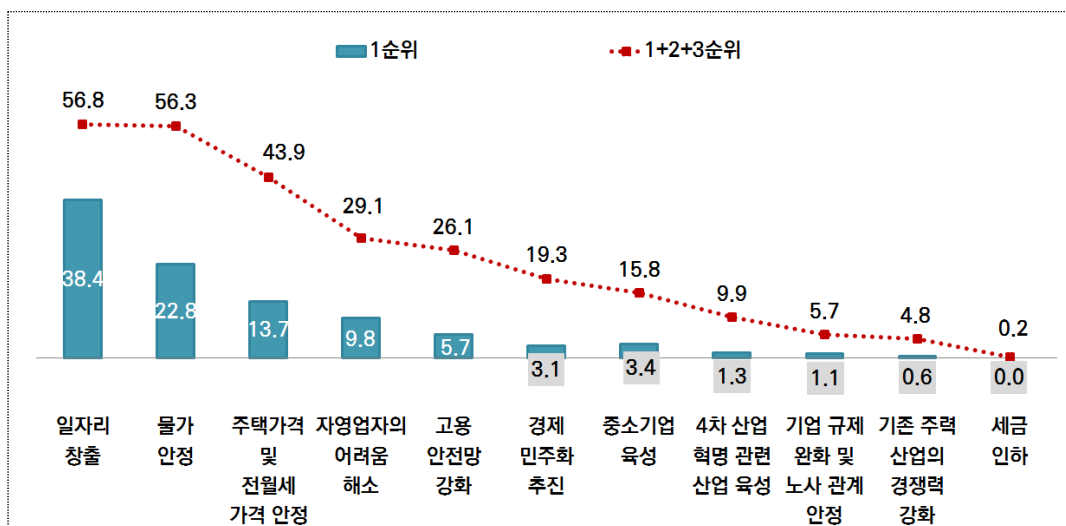


그림 16.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둘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둘 부문은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직업화’ 추진

- 민선 7기 서울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1순위는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직업화’(31.5%)
- 그다음은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15.6%),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강화’(15.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육성’(8.3%),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경력단절 예방’(6.0%) 등의 순
- 연령별로 보더라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직업화’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경력단절 예방’, ‘일자리 질 개선’은 연령이 낮을수록, ‘중·고령자의 일자리 발굴과 지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 1~3순위 합계결과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직업화’가 47.2%로 1위
- 그다음은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37.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육성’(28.0%), ‘중·고령자의 일자리 발굴과 지원’(25.8%),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경력단절 예방’(24.6%),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강화’(22.7%), ‘일자리 질 개선’(21.2%),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20.1%), ‘취업정보 시스템 강화’(17.2%), ‘영세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17.1%) 등의 순으로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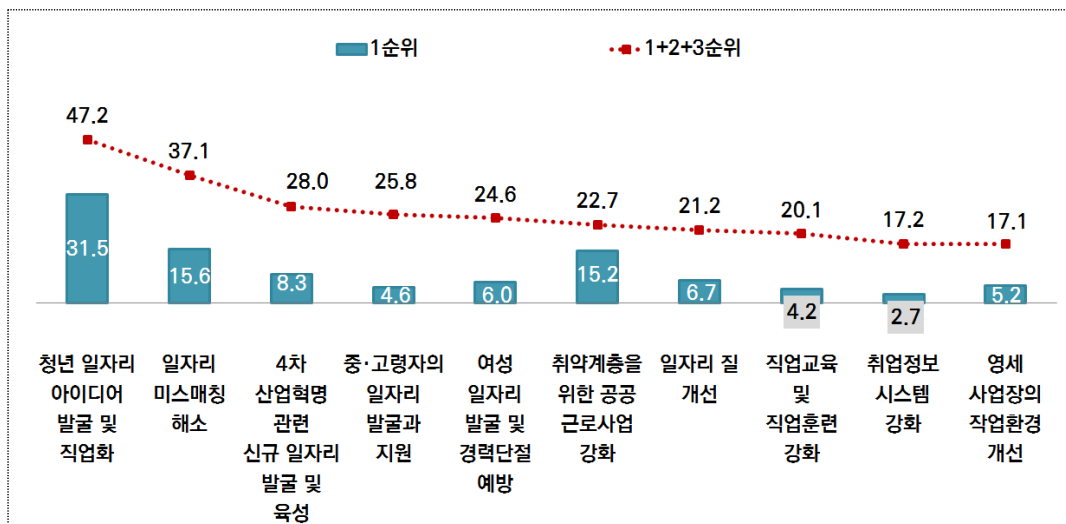


그림 17. 민선 7기 서울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둘 부문

##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은 ‘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

- 전체 응답자의 70.4%는 서울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
- 전체 응답자의 20.9%는 대기오염 수준이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8.7%는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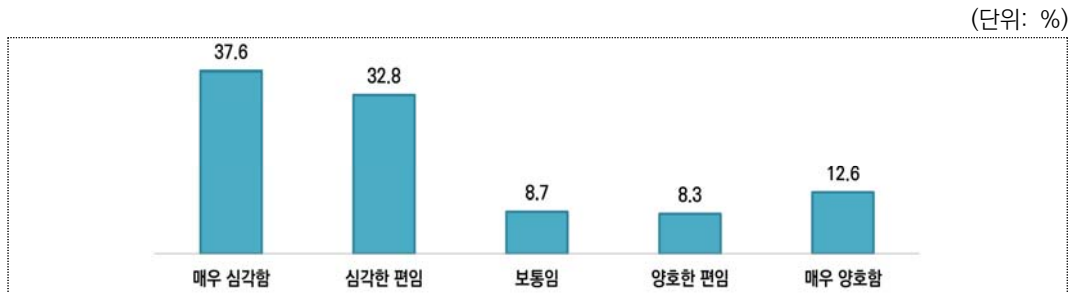


그림 18. 서울시 대기오염 수준 인식

- 서울시민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의 발생·이동·확산 경로 분석 등 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인식
- 1순위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이동·확산 경로 분석 등 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가 35.4%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13.2%), ‘차량 요일제 강화’(12.8%),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차량 2부제 강화’(11.2%)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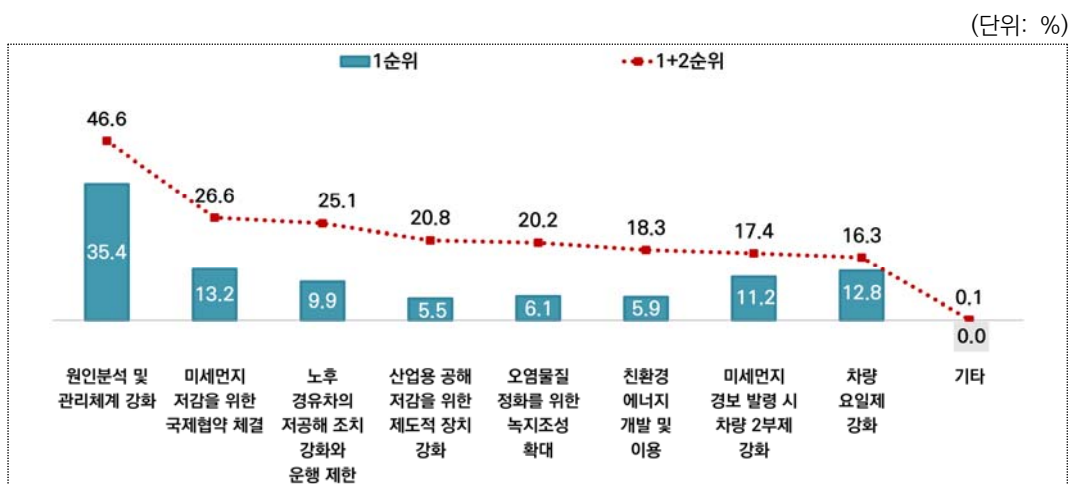


그림 19.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

## 부록: 2018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18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9로 전월 대비 0.8p 소폭 상승
- 분기별 조사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7년 2/4분기	102.1	85.0	103.7	63.1	110.1	91.2	74.8
2017년 3/4분기	102.3	86.1	98.3	84.2	96.4	91.7	67.5
2017년 4/4분기	103.3	88.2	97.9	84.0	94.0	94.4	70.8
2018년 1/4분기	97.3	86.1	96.0	67.1	86.0	90.6	67.4
2018년 2/4분기	97.8	86.6	96.0	67.3	87.0	91.0	70.1

주: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7년 2/4분기	111.0	98.1	98.6	111.7	134.0
2017년 3/4분기	114.9	101.7	98.7	95.0	134.5
2017년 4/4분기	112.0	101.0	99.4	90.1	137.1
2018년 1/4분기	113.3	99.9	97.7	78.4	144.5
2018년 2/4분기	114.1	101.2	99.0	79.4	145.6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임(2018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18년 5월 5일~5월 22일)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http://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https://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https://www.facebook.com/SeoulInstitute)